

2022년 봄을 맞이하는 단상

남정애*

해마다 3월이면 캠퍼스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다. 교내방송시간에는 ‘벚꽃 캐럴’이라는 별명이 붙은 노래 ‘벚꽃 엔딩’이 줄기차게 흘러나왔다. “봄바람 휘날리며~”를 따라부르는 학생들의 얼굴에 봄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다. 교내 동아리들이 여기저기 진을 치고 목청 높여 신입생을 모집하는 바람에 캠퍼스는 온종일 시끌벅적했다. 그 소음을 통과하고 들 어선 강의실 또한 삼삼오오 모여앉은 학생들의 잡담과 웃음소리로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. 호기심과 어색함이 섞인 표정의 신입생들은 캠퍼스 곳곳에 파릇파릇한 생기와 뽕송뽕송한 온기를 불어넣었다.

이 봄 풍경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19년이다. 2019라는 숫자가 이토록 아득할 줄이야. 그리고 이제 또다시 봄을 맞이한다. 과연 올봄 캠퍼스에는 이전의 봄 풍경이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까. 최근에 어느 전문가가 “코로나가 드라마라면 엔딩까지 딱 두 화 남았다”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다. 그렇다면 3월의 벚꽃 엔딩은 언감생심이라 하더라도 벚꽃이 진 후 분수대 화단을 빙 둘러 색색의 튜립이 피어날 무렵에는 백마상 주변 나무 그늘 아래 마스크 없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활짝 웃는 해피엔딩을 기대해보아도 되는 것일까.

* 숭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

